듣기 쓰기 읽기 _ 잃은 텍스트

김온 작가에 관하여

“쓰는 행위는 읽는 행위를 인도하고 읽는 행위는 듣는 행위를 권한다. 그리고, 듣는 행위는 쓰는 행위를 유발한다.” _ 김온 작가와의 인터뷰 중에서

김온은 2009년 산울림 소극장에서 있었던 ’Costume Play’라는 퍼포먼스 작품에서, 관객석에 앉아 불어로 쓰여진 디자이너 필립 스탁 (Philippe Starck)의 책 <STARCK EXPLICATIONS(Editions du Centre Pompidou, 2003)>를 20분간 읽는다. 관객은 불어로 들려지는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음율만을 언어 혹은 사운드로서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Object-Book 즉 책을 만드는 학과를 전공으로 한 김온은 책이라는 형식, 사람과 텍스트 사이에 벌어지는 행위(읽기, 듣기, 쓰기)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에서 관계 짓는 사고들에 관한 작업을 한다. 김온은 기호학에서 이야기하는 기표의 기의를 분리 혹은 해체 함으로써 그 독립적 소통의 방식을 연구한다. 읽기, 쓰기, 듣기가 갖는 기표, 즉 기호의 지각과 전달이 가능한 물질적 부분과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떠한 개념이라는 의미에서의 기의를, 분리될 수 없지만 합쳐질 수 없는 존재로, 즉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우월하다기 보다는 각기 다른 기능을 하지만 연결된 존재로 실험한다.

보르헤스 보르헤스 보르헤스

김온의 작업은 대학시절 읽은 보르헤스의 글이 주는 충격에서 출발한다. 작가가 이야기하듯, 보르헤스의 글은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생각을 끊는다’.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끊어지는 비선형적 구조와 그 가능성을 작가는 작업에서 기표를 변형시키고 기의를 해체하는, 또한 이러한 과정이 끝없이 연달아 이루어지는 반복성으로써 재현한다. 2002년 ‘Fictions N.6’에서 김온은 보르헤스의 ‘허구들’ 시리즈 중에서 임의의 텍스트를 선택하여, 반복적으로 전동식 타자기에 옮겨적는다. 이후, 텍스트가 새겨진 검은 마그네틱 마그네틱 테이프를 벽에 붙이며, 이러한 테이프는 마지막에 새의 날개모양을 이루는 작업을 하였다. 기표를 바꿈으로써 기의가 변형되는 방식으로, 텍스트가 형태를 변형하여, 텍스트의 내용이 담긴 마그네틱 테이프는 새의 날개 모양이 되며 새로운 의미전달 체계를 구성한다. 이러한 텍스트를 다른 물질로 바꾸는 실험은 2002년의 ‘Livre parallélépipède ni ouvert ni fermé (닫혀있지도 열려있지 않는 육면체의 책)의 작업에서도 나타난다. 작가는 보르헤스의 소설 “픽션들” 중에서 <바벨의 도서관>의 텍스트를 A4종이 단 한 장에 전동타자기로 옮기며, 이때 겹쳐쓰여진 글은 해독이 불가능하다.

보르헤스의 텍스트에 관한 지속적 기표와 기의의 해체와 결합의 실험은 2009년 “그런 곳은 없다”에서도 존재한다. 작가는 ‘그는 그것을 유토피아라고 불렀다. 그리스어로 그것은 ‘그런 곳은 없다’라는 뜻이다.’로 시작되는 보르헤스의 책 ‘허구들’에 있는 글 “지친 자의 유토피아”를 읽는다. 작가가 읽는 하나의 목소리로 시작하여 점차 왼쪽귀와 오른쪽귀에서 번갈아 반복적으로 두겹 세겹의 목소리가 되어 들리며, 글의 콘텍스트의 전달은 불가능해진다. 책의 본래적 기의는 겹쳐진 책읽는 소리에 의해, 그 의미 전달의 1차적 기능은 철저히 소멸된다. 여기에 작가는 ‘지친 자의 유토피아’를 제목과 각주만을 남기고 지우는 보르헤스의 글의 시각성 또한 해체한다. 텍스트는 검게 지워지고, 여백과 그 허구의 의미만이 남는다.

비생산적 창작

김온이 실험하는 기표와 기의의 해체와 결합에 대한 관심은, 그의 작품이 자본주의적 사용가치나 교환가치가 있는 행위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닌, 비 생산적 행위로써 새로운 긴장을 생산하는데 초점을 둔다. 사운드라는 매체가 가지는 비물질적 특성은 텍스트의 기표와 기의가 다시 연루되는 방식에서 주되게 드러난다.

‘나는 화장실에 들어간다 (2002)’ 어린이용 의자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16번의 과정을 담은 텍스트를 벽에 실크스크린한 작업이다. 관객은 낮은 의자에 앉아 작게 적혀진 텍스트를 읽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화장실에 들어간다’에서 시작하여 ‘나는 무한한 시간 동안 변기에 앉아 있음을 꿈꾼다’, ‘벽에 걸려있는 영원히 마르지 않을 수건처럼.’ 까지의 글을 통해, 관객의 불편한 자세로 앉아 텍스트를 읽기 위해 집중하는 순간, 시간은 멈춰지며, 무한한 ‘시간’이 펼쳐진다고 작가는 이야기한다.

의미 전달이 되지 않는 텍스트를 제작하는 비생산성의 작업결과물은 메타내러티브가 전제하는 계몽주의적 주체에 대한 불신을 전제한다. 메타내러티브란 역사적 경험이나 지식을 이해하는 ‘의미의 총체가 되는 이야기를 말한다. 리오타르가 이야기하듯, 메타내러티브는 권력의 구조를 생성하며 강화시키고, 인간의 존재의 다양성을 무시한다. 김온의 작업에서 끊임없이 시도하는 메타네러티브 퇴화된 순간들은 규범화되고, 설명적이던 내러티브 언어의 요소를 해체한다. 메타네러티브가 추구하는 뛰어난 목적의식이 사라지며, 영웅을 잃어버리고, 엄청난 위험 요소는 소멸한다. 김온의 작품은 역사적 발전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을 구체화한다. 그 안에 숨어있는 인간의 다양한 비생산적 열정들을 밖으로 드러낸다.

‘과자의 문학적 혁명 (2008)’에서 작가는 약 5분간 과자 패키지 있는 모든 텍스트를 일괄적 행렬방식으로 읽어가면서, 소비를 조장하는 현란한 패키지들의 크고 작은 활자들을 사운드로서 평등화시킨다. 한편의 소리 시(sound poetry)이기도 한 작업에서, 읽는 행위라는 매개를 통해 자본주의의 소비물품의 문체적가 갖는 소비주의적 가치의 해체를 실험한다.

‘Livre à fumer –devenir– (태우기 위한 책, 2004)’ 작업에서 김온은 devinir[~되다, 생성]라는 한 단어를 반복해서 날카로운 펜촉으로 얇은 종이 위에 쓴다. 관객은 쓰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글이 쓰여진 종이를 프로젝션한 이미지와 정면으로 마주한다. 글이 다 쓰여지면, 이 종이를 말아 담배로 핀다. 이 순간 어떤 이의 입에서 글자는 연기와 함께 사라지고, 담배꽁초에는 "devenir"의 "de"가 사라진 채venir[~오다,~이르다] 단어가 되며, 이는 마지막 불씨가 명을 다하고 재가 되어 사라진다.

창작의 공유

김온은 텍스트의 기표와 기의를 바꾸어 비생산적 창작을 하는 과정에 꾸준히 관객의 참여를 요구한다. 작가 자신이 이야기하듯, 작품 자체가 갖는 ‘자폐적 성향’은 때문에 반대로 그 소통을 다룬다. ‘215분 44초간의 친밀한 시간, 여기 그리고 다른 곳에’라는 작업에서 작가는 ‘책읽기를 좋아하시면 작업실에 오세요’라는 광고를 낸다. 2002년 11월 29일부터 2003년 5월 22일까지 행해진 이러한 “책 읽기”프로젝트. 초대를 통한, 그 참여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작업으로 11개의 다른 언어, 34명이 참여한다. 책 선택과 읽는 시간은 참여자의 자유에 있었으며, 책 저자와 책제목은 읽지 않는 전제하에 녹음이 실행된다.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 다른 이야기, 다른 책 읽기 방법, 다른 억양, 다른 언어들을 통해 소리적인 공동“거

주” (habitation)를 경험한다. 관객들은 불교의 경전에서 호머의 오디세이, 로미오와 줄리엣, 성경 등을 다루는 215분 44초의 각기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명상한다.

‘힘에 개입된 소리 “ㄱ” (2007)’은 작가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한글의 자음, 모음의 시 청각적 구성법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시작한 작업이다. 대구에 위치한 힘(HIM) 이라는 이름을 가진 건축사사무소 공간에서 진행된 본 작업에서, 관객은 ‘힘에 개입된 소리 ”ㄱ”의 자음과 모음을A4 종이 위에 붓펜으로 각각 분리하여 쓴다. 건축사사무소 이름인 "힘", 즉 권력 과 "him"의 동음이의어의 언어적 놀이발상에 근거하며, 기억과 ‘ㄱ’ 동음이의어의 방법적이면서도 유희적인 놀이를 ‘소리’라는 매체와 관객의 글 만들기 참여를 제시한다.

글을 맺으며,

김온은 책의 ‘쓰기’, ’읽기’, ’듣기’ 라는 행위와 이를 통한 기표와 기의의 해체-변형을 실험한다. 이는 특정한 공간에서의 일시적인 작업으로, 관객 참여를 근거로 혹은, 사운드와 퍼포먼스, 소리 시(Sound Poetry), 설치미술, 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로 실현하며, 이를 통해 비생산적, 반 자본주의적 가치들을 공유하는 하나의 순간을 창조하고자 한다.

글: 양지윤, 독립큐레이터, Lab201